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성경: 출애굽기 17장 8-16절

Tag:

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17:8-16)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으로 말미암은 채찍으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보내셨다.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깨뜨리시며 물

을 공급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사막에서 과연 어디에서 물을 구한단 말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그래서 바로 아말렉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

아말렉은 떠돌이 깡패집단이다.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정도 없다. 모습만 사람이지만 하는 짓은 하이에나와 메뚜기 떼와 다를 바 없다. 반드시 약자만 공격해서 빼앗는다. 농사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신용기반 업종) 일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남의 것 빼앗아 먹는다.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인신매매를 한다.

후에 이런 방식으로 마호멧이 이슬람국을 세웠다. 요즘은 북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생존하려고 몸부림친다. 현재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런 패륜적인 무리들은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직폭력배들은 아말렉스럽다.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정권을 탈취한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 생명과 재산과 소중한 가치들이 지켜진다. 우리가 방심할 경우, 의심할 경우, 하나님과 다툰 경우, 하나님을 시험할 경우,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을 경우, 경건한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아말렉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그런 악한 것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

여호수아는 군인을 모집해서 싸우러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점에 아주 중요한 면인데 하나님은 무늬만 경건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경건은 곧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만 해서도 안되고, 싸우기만 해서도 안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한국의 영성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하셨다.

왜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도왔다. 그들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다.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움을 받으니 모세도 어렵지 않았다. 혼자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 하니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전쟁은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

절박한 순간에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영성이고, 그때 기도하는 것도 영성이며, 함께 기도를 돕는 것도 영성이다.

그런데 더 큰 지혜가 있다.

그것은 모세가 기도하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주변에서 돌을 가져다 그 위에 모세를 앉도록 하였다. 이것이 지혜다.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경건의 능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경건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 자금을 비축해야 하고, 그 비축한 자금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의 능력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운동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제격이다. 한국교회는 모든 의심과 불평과 분열을 걷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아말렉과 전쟁해야 한다. 현재의 아말렉은 미처 날뛰는 북한의 괴로정권이고, 미래의 아말렉은 중국의 공산당이다.

우리 교회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일어 서든지, 의자에 앉아서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후손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